

전주서 선보인 '종묘제례악' 매진 속 성료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국립국악원과 공동 기획 송년특별공연 성황리 마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지난 11월 30일 국립국악원과 공동 기획한 송년특별공연 '종묘제례악' 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고 전했다.

3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2024 소리축제 하반기 마지막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티켓 오픈 때부터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사전 예매를 통해 매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연 당일 현장에서까지 티켓 문의가 꾸준히 이어졌다.

'종묘제례악'은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위를 모신 종묘에서 제례를 올릴 때 제례 절차에 맞춰 연주하는 음악과 춤을 말하며, 세종대왕이 직접 참제하고 세조에 의해 완성됐다.

오늘날의 '종묘제례악'은 조선 왕실의 음악 기관이었던 장악원(掌樂院)의 악공들이 연주하던 전통을 국립국악원이 물려받아 계승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이를 무대화한 작품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과 무용단의 연주 그리고 춤을 통해 선보였다.

특히 김영은 前 국립국악원장의 해설과 함께 약 2시간 정도 진행된 공연은 깊이 있고 품격 있는 무대로 뜨거운 감동과 여운을 전하며,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 속에 공연을 잘 마무리했다.

이날 공연에는 일반 관객뿐만 아니라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도 관계자들 그리고 황순인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국립국악원과 공동 기획한 송년특별공연 '종묘제례악' 공연을 성황리에 끝마쳤다.

이석 황실문화재단, 전주 이 씨 종친회와 전북 국악 및 문화예술계의 각 기관장, 예술가, 기획자 등 각 계 각층의 많은 분들이 공연장을 찾아 '종묘제례악' 공연을 관람했다.

황실재단 관계자는 조선 왕조의 발상지이자 5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전주에서 이번 공연이 열린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

을 밝혔다.

김희선 소리축제 집행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이번 공연에 관심을 가져주고 환호해 줘서 감사드리다"며 "내년에도 전통과 월드뮤직을 중심으로 한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객분들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통 금속 공예 특별전 열린다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 10일까지 송은선 작가 작품 전시

익산시가 전통 금속 공예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탐구하는 특별 전시 '아로 새겨진, 오래된 미래'를 선보인다.

시는 오는 10일까지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에서 기능 무형유산 전수자인 송은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아로 새겨진, 오래된 미래'에서 '아로 새기다'는 무늬나 글자를 정교하게 파서 새긴다는 뜻으로, 과거의 유산을 현재에 되새기고 미래로 이어지는 연결을 의미한다.

주요 전시 작품인 '익산 입점리 판모', '익산 왕궁리 사서함' 등은 송은선 작가가 익산의 문화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이다. 금속의 선과 형태의 조화를 통해 과거와 소름 창구를 마련하고, 익산 백제 유물 연구의 순환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한 방문객을 위해 전시뿐만 아니라 돌



판 그림그리기, 연날리기, 소원돌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운영한다.

금속 공예 특별 전시는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석제품전시홍보관(063-859-5599, 5597)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 개최

전주문화재단, 5일 예술상 시상식·음악회 등 다채롭게 진행

전주문화재단은 오는 5일 오후 7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홀에서 2024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로 예술후원을 이어온 후원인과 기업, 전주의 예술인을 위한 송년 행사로, 이팝프렌즈 예술상 시상식과 팔복다북 음악회, 만찬과 친교의 시간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후원인의 밤 1부 행사인 이팝프렌즈 예술상 시상식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응원하는 예술인상 시상과, 적극적인 후원 활동에 감사를 표하는 후원인상 시상으로 이뤄진다.

올해 '이팝프렌즈 예술상'은 수상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작품성과 지역 기여도 중심의 심사를 거쳐 예술인상에 3명, 기획자상에 1명을 최종 선정했다.

예술인상에는 문학분야 이광재, 시각분야 홍선기, 공연분야 오민혁, 기획분야 오해룡씨가 각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수상의 영예를 안는다.

후원기업상에는 남창당한약방(원장 한광수)이 우범기 전주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2부 행사로는 '팔복다북 음악회'가 함께 운영된다. 음악회는 이팝프렌즈의 후원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음악회로 차오르는 송년의 감성을 선사할 예정이다.

최라기 대표이사는 "올해도 이팝프렌즈 후원인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모여 '후원인의 밤'을 선보일 수 있었다"며 "후원인 여러분이 꽃피워



준 예술후원을 후원인의 밤 행사를 통해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문화예술 후원회 이팝프렌즈 나춘균 회장은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를 위해 후원해주신 향토기업인과 시민들에게 감사드리다"며 "이번 시상식의 수상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창작활동을 이어온 예술인을 선정해 제정의 취지를 살리려 했다"고 전했다.

이번 이팝프렌즈 후원인의 밤 행사는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박은교 작가 초청 시나리오 작가 오픈 특강

전주국제영화제(공동집행위원장 민성욱·정준호)는 오는 10일 시나리오 작가 오픈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주시에 함께하는 관광거점도시 전주 사업의 일환인 '쏷인 전주(Shoot in Jeonju)'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쏷인 전주'는 전주시를 소재로 배경으로 하는, 영화화 가능성이 높고 작품성·독창성이 뛰어난 새로운 국내 영화 프로젝트와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진 작가를 발굴·육

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특강은 영화 <미쓰 홍당무>, <마더>, <네버엔딩 스토리>, <보통의 가족> 각본과 다수 영화의 각색을 맡았고, 넷플릭스 시리즈 <고요의 바다>와 디즈니+ 시리즈 <메인드 인 코리아>(2025년 공개 예정)의 각본을 집필한 박은교 작가가 진행한다.

특강은 '쏷인 전주'의 장편영화 시나리오 기획개발과 단편영화 제작 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한 출품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나리오 작



박은교 작가

적, 문화적 가치를 소개하는 전주 원도심 로케이션 투어도 진행된다.

/장은성 기자

전통한지 예술교육 참가자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전통한지 예술교육 프로그램 '한지·귀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전통한지 예술교육은 '악귀를 치고 복을 구한다'는 벽사구복의 의미가 담긴 귀면을 알아보고, 이를 한지 위에 불화 기법을 활용해 그려보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오는 18일 전주천년한지관에서 진행되는 교육의 참가 신청은 11일까지 전주천년한지관 누리집(jnhm.kr)에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 장애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 진행

전북특별자치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최근 전주선화학교 고등학생들과 함께 장애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인 <다감각! 미술관>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감각! 미술관>은 전시작품 감상 후 안무가, 무용가와 함께 신체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표현활동을 통해 현대미술을 다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주선화학교(공립특수학교) 고등학생 20명이 참여해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선물> 전시작품을 감상하고, 예술가립 아트열(안무가 노경애 외)과 함께 장애 유형에 맞는 신체활동을 통해 '관계의 가변성'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교육문화팀(063-290-6882)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